

[N2 인터뷰] 전광우 초대 금융위원장 “코스피 1000 붕괴 기억...‘오천피’는 역사적 분기점”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초대 금융위원장)
IMF·글로벌 금융위기 최전선에 섰던 정책통
“5,000 돌파 감회 남달라...지속 가능성이 관건”
“경제 기초체력 키워야...노동·기술·금융 혁신 필요”
“과도한 국민연금 역할론 경계...자율성 존중해야”

입력 : 2026.01.29 06:55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진=세계경제연구원]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가 1,000선 아래로 내려갔던 장면을 직접 겪은 사람으로서 이번 5,000 돌파는 감회가 큼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9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스피 5,000은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하나의 분기점을 넘어섰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은행 수석연구위원 출신인 전 이사장은 초대 금융위원장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을 지내며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한국 경제의 주요 위기 국면마다 정책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특보를 맡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금융위원장으로 시장 안정에 대응했다.

전 이사장은 이번 코스피 5,000 돌파를 단기적 랠리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현실감 없이 오르내리던 목표치가 실제로 달성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흐름을 얼마나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 “숫자 하나 찍었다고 끝 아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중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7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5,000선을 넘어 ‘오천피’ 시대를 연 데 이어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번 랠리는 단기간에 형성된 흐름이 아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27일 장중 4,000선을 돌파하며 한국거래소 출범 45년 만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왔다. 같은 해 11월 3일에는 종가 기준 4,200선을 넘어섰고, 새해 들어 4,300선을 돌파한 뒤 불과 한 달 만에 5,100선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다.

전 이사장은 “코스피 5,000은 너무 오래 말로만 거론돼 온 숫자였다”며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는 목표였지만 실제로 달성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리고 기억은 자연스럽게 2008년으로 향했다.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코스피가 한때 1,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실제로 코스피는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이던 2008년 10월 24일, 하루 만에 110.96포인트(10.57%) 급락하며 938.75로 마감했다. 1989년 3월 31일 종가 기준 처음으로 1,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2007년 7월 25일 2,000선을 넘어섰고, 같은 해 10월 31일 2,064.85로 고점을 찍은 뒤 불과 1년 만에 1,100포인트 이상을 반납하는 급락을 겪었다.

전 이사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시장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 안정 펀드를 긴급히 조성했는데, 국민들의 참여도 컸다”며 “저 역시 개인적으로 1호 가입자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그 시점이 시장의 바닥이었다”고 회고했다.

전 이사장은 “1,000선 붕괴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오천피’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에서 분명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증시 랠리에 대해 ‘비정상적 정상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전 이사장은 “그동안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다”며 “PBR(주가순자산비율)이 1은커녕 0.5 수준에 머물렀던 기간이 길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PBR이 1을 넘어 1.5 수준까지 회복된 것은 과도한 저평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며 “이를 단기 과열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정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는 “지난해 코스피가 70% 넘게 상승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고, 올해도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일부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PBR 기준으로 보면 주요국 대비 아직 추가 여지가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광우 이사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었던 2008년, 자본시장 안정 펀드로 조성한 절세형 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 “주가는 결국 미래 수익… 잠재성장률이 관건”

전 이사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기초 체력’이다. 그는 “주가는 결국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결과”라며 “기업의 미래 성장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가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실적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경제의 기본 체력, 즉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과제로는 노동·기술·금융을 꼽았다. 전 이사장은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고, 기술은 AI를 중심으로 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금융 역시 보다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산업별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K자형’ 회복을 언급하며 금융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AI·방산처럼 잘 나가는 산업이 있는 반면, 화학·철강·섬유 등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도 적지 않다”며 “산업 간 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되면 경제 전반의 안정적 성장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신성장 산업,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함께 살리는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그었다. 2009~2013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전 이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 채권 중심이던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을 주식과 대체투자로 다변화하는 전환기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무리하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위험하다”고 단언했다. 이어 “단일 기관이 자국 증시에 과도하게 집중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며 “많이 오른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며 “연기금은 자율적 판단 아래 시장 안정과 장기 수익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엠보라 기자 기자 boraa8996@news2day.co.kr]

<저작권자©뉴스투데이 & www.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